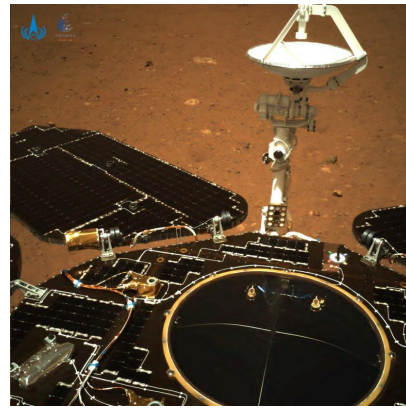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세계 유동성 둔화 이미 시작돼..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 ◇ (칼럼)-인플레 헤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갈 길 멀다는 증거
 - ◇ (칼럼)-기저효과 빼고 보니 美 인플레이션 정말 높지 않다
 - ◇ (초점)-리보 기반 신규거래 중단 앞두고 은행권 '혼란' 증증.."컨트롤타워 절실"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화성탐사선 텐원 1호가 화성에 도착한 뒤 탐사 로봇 주룽이 촬영한 사진을 중국국가항천국(CNSA)가 공개했다. (로이터/CNSA 배포)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21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27.0	0.1%	-3.6%	+6.5%	유로	1.2179	0.3%	-0.3%	+8.9%
100엔 대비	1,034.8	-0.5%	1.6%	+1.1%	엔	108.94	0.4%	-5.2%	+5.2%
유로 대비	1,373.3	-0.5%	-3.4%	-2.3%	위안	6.4355	0.3%	1.4%	+6.7%
위안 대비	175.25	-0.2%	-5.1%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207.84	-0.5%	11.8%	+7.2%
코스피	3,156.42	0.1%	9.8%	+30.8%	나스닥	13,470.99	0.3%	4.5%	+43.6%
코스닥	965.63	-0.1%	-0.3%	+44.6%	S&P500	4,155.86	-0.4%	10.6%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83.39	1.6%	3.2%	+19.8%
국고채 3Y	1.095%	-2.1bp	11.9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29%	-2.2bp	29.4bp	-14.5bp	미국채 2Y	0.155%	0.6bp	3.4bp	-144.0bp
국고채 10Y	2.123%	-3.5bp	41.0bp	+3.0bp	미국채 10Y	1.623%	-1.2bp	71.1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3.58	-2.7%	31.0%	-20.5%	한국 5Y	18.8bp	0.1bp	-3.1bp	+0.1bp
금(현물)	1,880.30	2.1%	-0.9%	+25.0%	일본 5Y	17.6bp	0.6bp	2.6bp	-4.5bp
TR상품지수	2,884.89	-2.8%	7.7%	+7.8%	중국 5Y	39.9bp	1.6bp	11.8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월 24일(월)>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12:00)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25일(화)>

- 금감원, 4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한은,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한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12:00)
- 기재부, 부총리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20:00)

<26일(수)>

- 한은,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10:00)
- 한은,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3월 인구동향 · 4월 국내인구이동(12:00)

<27일(목)>

- 금융위 ·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06:00)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
- 한은, 경제 전망(13:30)
- 기재부,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28일(금)>

- 한은, 1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 한은,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국민연금기금 운용 중기자산배분(안)(2022년~2026년) 심의, 의결 등)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월 24일(월)>

- 미국, 4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독일 휴장

<25일(화)>

- 미국, 4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5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1:30)
- 미국, 3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4월 신규주택 판매 (23:00)

<26일(수)>

- 뉴질랜드 연방은행, 통화정책 성명 · 기자회견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싱가포르 휴장

<2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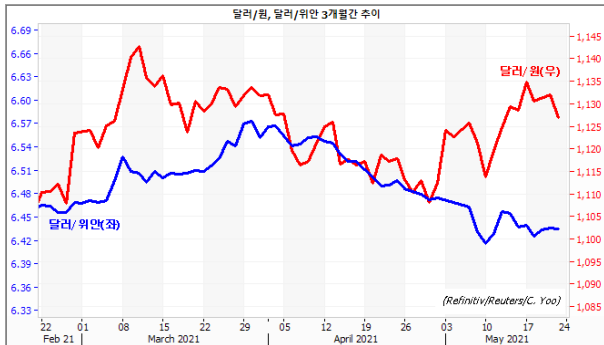
- 중국, 4월 산업이익 (10:30)
- 미국, 1분기 기업이익 잠정치 (21:30)
- 미국, 4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1분기 GDP 추정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4월 잠정주택판매 지수 (23:00)
- 미국, 5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8일(금)>

- 일본, 5월 도쿄 CPI (08:30)
- 일본, 4월 실업률 (08:30)
- 유로존, 5월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8:00)
- 미국, 4월 개인소득 · 근원 PCE 가격지수 (21:30)
- 미국, 4월 도매 · 소매재고 (21:30)
- 미국, 5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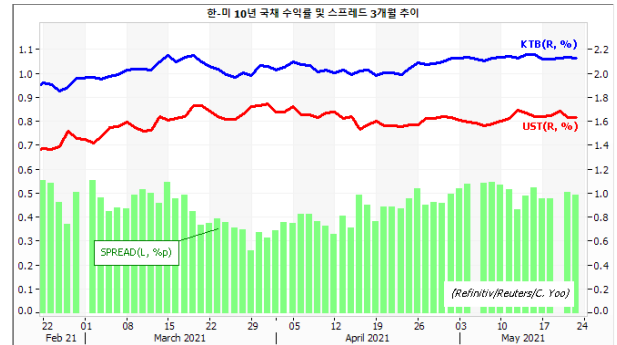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기존 박스권 안에서 주로 수급에 연동되는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15-1135 원이다.
- 미국 예외주의 모멘텀이 완화되면서 최근 유로와 파운드를 포함해 주요 상품통화는 강세 압력을,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아시아 통화 절상 압력은 제한적이다.
- 원화 역시 약달러 영향권에 간접적으로 속해 있으면서도 이를 반영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 오히려 지난주 달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한국 주식 매도와 관련 역송금 수요에 일시적으로 상승탄력을 키우기도 했다.
-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압력에 주요국 통화정책 기초 전환을 둘러싼 경계감이 때때로 시장 심리를 흔들지만, 투자심리 회복력은 여전히 탄탄하다.
- 이번 주는 월말 주로 수급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처럼 월말이라 해서 네고가가 단연 우위를 점하지는 않겠지만, 수급 영향력은 확대될 여지가 있다.
- 특히 오는 28일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리밸런싱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전후해 주가 변동성 확대와 관련 외국인 매도 가능성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번 주에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수정 경제 전망 발표가 있다. 한국은행의 기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3.0%였는데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 등을 바탕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챙겨 봐야 할 해외 경제지표로는 미국 4월 개인소득 및 소비, PCE 물가지수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 가격의 변동성, 미국의 개인소비지출가격(PCE) 디플레이터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결과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자산시장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오락가락 트윗과 함께 시장에 혼란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포지션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인플레이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 29일에는 미국의 PCE 디플레이터가 공개된다. PCE 디플레이터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수로 알려져 있어 시장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일부 IB들은 PCE 디플레이터가 2.7%를 넘어설 경우 연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PCE 디플레이터가 시장의 인플레이션 논란을 한층 더 키울지 아니면 잠재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시장의 우선 관심사는 한은의 경기 진단이다. 정부가 4% 이상 성장을 공언한 상황에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대 후반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성장률과 물가다.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 조정을 통해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큰 흐름에 대한 한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방향성 재료는 그야말로 혼재돼 있다. 롱이든 숏이든 어느 한쪽 방향에 집중하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 국채선물 저평가 줄이기 작업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분석)-세계 유동성 둔화 이미 시작돼..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런던 (로이터) - 지난 1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했던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 패달에서 발을 떼기 시작했고, 경제와 금융시장은 다시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똑같이 실망할 일은 아니다.

작년 3월 이후 각국 통화 및 재정 당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7조달러를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컨설팅업체 크로스보더캐피탈은 추산했다.

이후 전 세계 주가지수는 85% 치솟았고, 경제 성장이 반등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속도로 유동성을 계속 투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한다.

여전히 값싼 유동성은 풍부하다. 크로스보더캐피탈에 따르면 지난 1월 88%보다는 낮지만, 3월 말 기준 중앙은행의 82%가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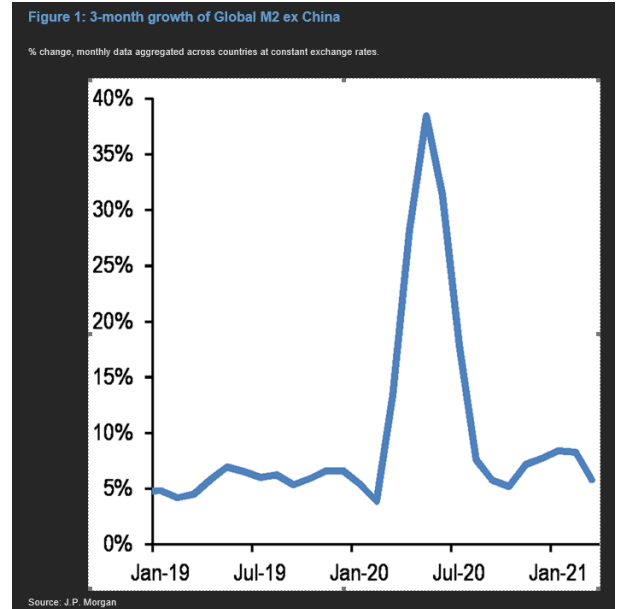
지난달 캐나다 중앙은행은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했고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영란은행도 채권매입 속도를 조절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연내 부양책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유동성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투입한 총 유동성은 작년 GDP의 28.8%에 달했으나, 현재는 18.5% 수준일 것으로 픽핏애셋매니지먼트의 스티브 돈제 선임 거시 전략가는 추산한다.

그는 유동성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유동성 투입이 작년 최대치 대비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글로벌 통화 공급은 작년 고정인 GDP 대비 26%에서 24%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인 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역시 유동성 증가에 한몫했었으나, 봉쇄조치가 끝나면서 노동자와 기업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은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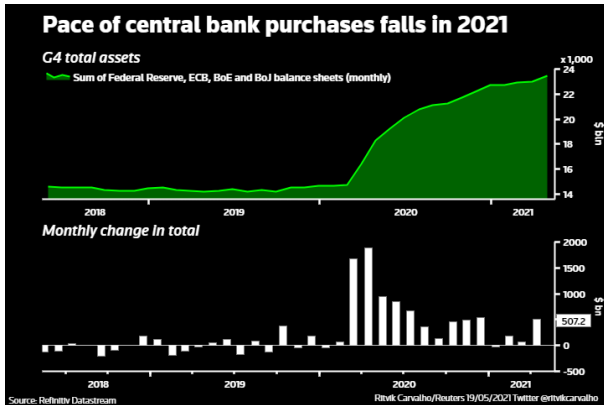
GDP의 15%에 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승인된다면 일부 중앙은행의 정책 긴축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 부양책 자금 조달은 증세를 통해 이뤄지기에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JP 모간의 니콜라오스 파니기르트조글루 전략가는 주요 '초과 유동성' 지표들을 살펴보면 작년의 초완화적 경제 여건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통화량 증가율이 지난 1월 이후 GDP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이미 과잉 유동성 축소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대비 현금 보유액이 '유난히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주식 시장이 "강세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궤도 등 다른 요인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테이퍼링 시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계속 투입하는 유동성에 매혹돼 있었다. 2013년이나 2018년 말처럼 양적완화 축소 시도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에 정책 입안자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달라 보인다. 경제는 강하게 회복 중이며, 채권시장은 마침내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풍부한 유동성 영향에 과열 상태일 수도 있다. 크로스보더캐피탈이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율 기준 주택 가격은 6개월마다 10% 이상 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 폭발과 과열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이번 주 완화적 정책 유지와 관련해 연준이 '위험한 안주'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픽셋애셋매니지먼트의 돈제 전략가 역시 "(정책이) 너무 과다해지고 급격한 긴축으로 현재의 경제 확장세가 꺾이기 전에"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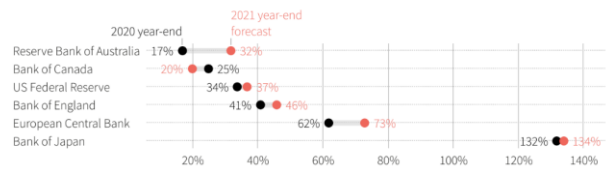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이 채권매입 규모를 작년 근 9조달러에서 올해 약 3조 4000억달러까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2020년 이전 기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규모다. 캐나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올해 대차대조표는 크게 불어날 것이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UBP의 노만 빌라민 최고투자 책임자는 최근 정책 입안자들의 긴축 시도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이 실수를 저지를 위험은 너무 이른 긴축보다는 지나친 완화정책 측면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entral banks, except the BoC, may increase the size of their balance sheet vs. GDP in 2021

Central bank balance sheets as % of GDP, end-2020 through to end-2021 (forecast)



Source: BofA Global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칼럼)-인플레 헤지라면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갈 길 멀다는 증거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욕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간단하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며 공급이 제한돼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 가치가 조작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보고 있자니 이 같은 주장들에 의구심이 생긴다.

중국이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자동차 판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주 만

에 50% 가까이 급락해 4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더 등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급락했다.

열렬한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이같은 변동성이 중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중앙은행이 아닌 사용자들에 의해 결정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기술주 투자자인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는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50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자는 이런 변동성을 투기 열풍의 주된 특징으로 본다. 애플 시가총액은 2조달러로 비트코인의 3배에 달하지만, 지난 18일 비트코인 거래대금은 애플 주식 거래대금의 10배가 넘는 920억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몇 가지는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재생 에너지 자원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또 비트코인이 머스크 CEO와 같은 스타일의 개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지위를 확보한다면 큰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실물화폐와 같은 지위를 가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에 간섭하고 있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게시판 사용자 등은 중앙은행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성격이 있다는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기는커녕 급락했다.

결국 비트코인은 언젠가 화폐가 될 수도 있는 선택지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가장 좋으며,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칼럼)-기저효과 빼고 보니 美 인플레이션 정말 높지 않다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욕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위험한 안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만 해도 서머스 교수는 물가 하락을 우려하면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인해 경제는 빠르게 침체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고, 단기간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상승해 2008년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고용이 판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통화 정책 긴축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작년 2분기 미국 GDP는 연율로 3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물가 등 지표에서 기저효과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은 2년 단위로 지수를 보는 것이다. 24개월로 기간을 늘려서 CPI를 보면 올해 4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올랐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나 2019년 실적에 비해서도 그리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을 2.6%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물론 안전한 전망이라기보다는 낙관적인 편에 속할 수 있다. 국채 시장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향후 5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율은 2.7%에 달한다. 향후 6년에서 10년 전망을 반영하면 이 수치는 2.3%가 된다.

즉,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은 10년 단위로 보면 그리 놀랄 정도라거나 특별한 정도는 아니다. 서머스 교수의 방법대로 측정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은 연준의 희망 범위 안에 있다.

(초점)-리보 기반 신규거래 중단 앞두고 은행권 '혼란' 증증.. "컨트롤타워 절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런던은행간금리(Libor-리보)를 준거금리로 적용한 신규계약의 중단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국내 은행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이 설정한 데드라인의 변경 여부부터 새 지표금리를 활용한 가격의 계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4분기부터 신규계약 중단..은행업계 "불확실성 해소돼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올해 4분기 이후로 리보에 연계된 신규계약 체결을 중지하는 것을 권고드린다"며 올해 말 이후에도 만기가 남아 있는 리보 연계 계약의 경우 리보 산출 중단시 대체할 금리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3분기 이전에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발표 이후 국내 은행들 역시 관련 전산작업 등 리보를 대체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새 지표금리의 가격 계산 등과 관련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데다 감독당국의 입장이 불분명해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A 은행 자금운용부장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표금리를 썼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계산하는 전산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담보부 초단기 조달금리) 계산은 예전 OIS(Overnight Index Swap) 가격을 내던 걸 준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과거 계약했던 걸 그대로 새 계약에 이식할지 거래를 조기 종료하고 다시 짚을지 등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통화의 리보금리가 내년 1월부터 산출 중단되는 것과 달리 국내 은행들의 포지션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의 산출이 2023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는 점도 큰 변수다. 달러 리보의 산출 중단 시점이 유예된 만큼 국내 금융당국도 좀 더 여유를 두고 리보 기반 신규계

약의 중단 시점을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당장 4분기부터 리보 기반 신규거래를 중단하기 위해선 SOFR 등을 기반으로 한 시범적 거래 등이 그 전에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B 은행 자금운용부장은 "은행들이 SOFR을 기준으로 한 평가 커브를 금강원으로부터 승인받으려면 시장에 SOFR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1년 넘어가는 커브는 달러 리보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다 고객들로부터 계속 리보 계약 요청이 오고 있어 전환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분위기"라며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자칫 유동성 없는 시기에 제도개편 준비가 몰려서 커브가 집중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컨트롤 타워 필요'..금융당국 "시장 중심 논의 바람직"

분명한 컨트롤 타워 없이 시장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리보 산출 중단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리보금리 전환 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A 은행 자금운용부장은 "은행간 거래는 컨센서스가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기존에 기업과 했던 리보 연계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연합회에서 모여 몇 번 이야기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막상 모여도 이야기할 게 별로 없고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C 은행 스왑 딜러는 "다들 누가 나서주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고 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각자도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심이 된 전환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4분기부터 리

보금리 기반 신규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리보 금리가 2023년까지 산출되긴 하지만 어떤 나라든 내년까지 리보 신규 계약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국내 일부 은행들이 리보 기반 신규거래 가능 시점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늦추는 게 어떨냐는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기존 입장에 아직 공식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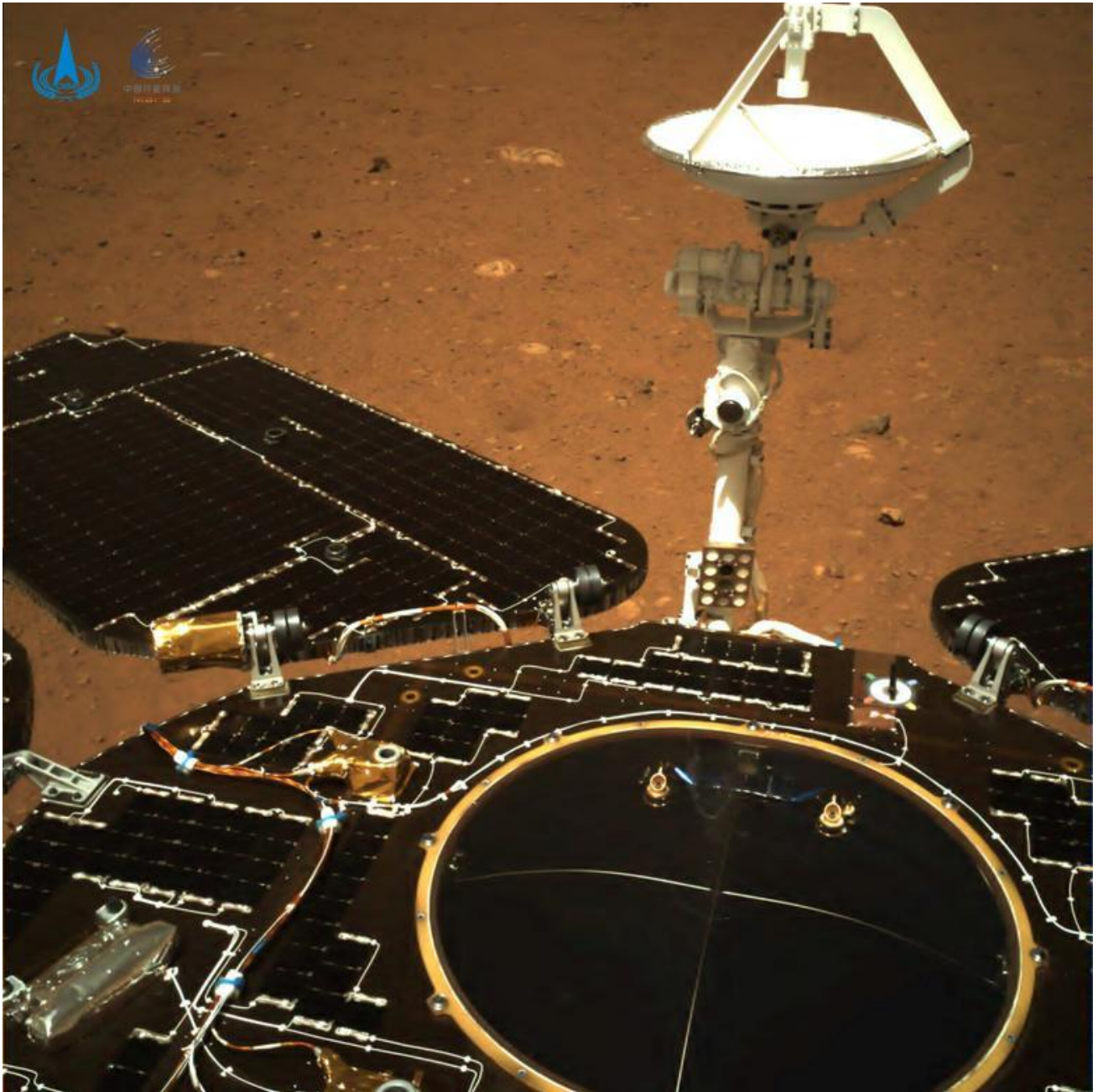
그는 "리보금리 전환에 대한 대응은 연합회 중심의 TF에서 하고 있다"며 "은행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제시는 하겠지만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로 내놓아야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현재 리보금리 기반의 거래 익스포저 등 시장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 여러 이슈와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3월부터 리보금리 기반 거래와 관련한 현황을 조사 중인데 신규 계약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과 올해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현황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금융위,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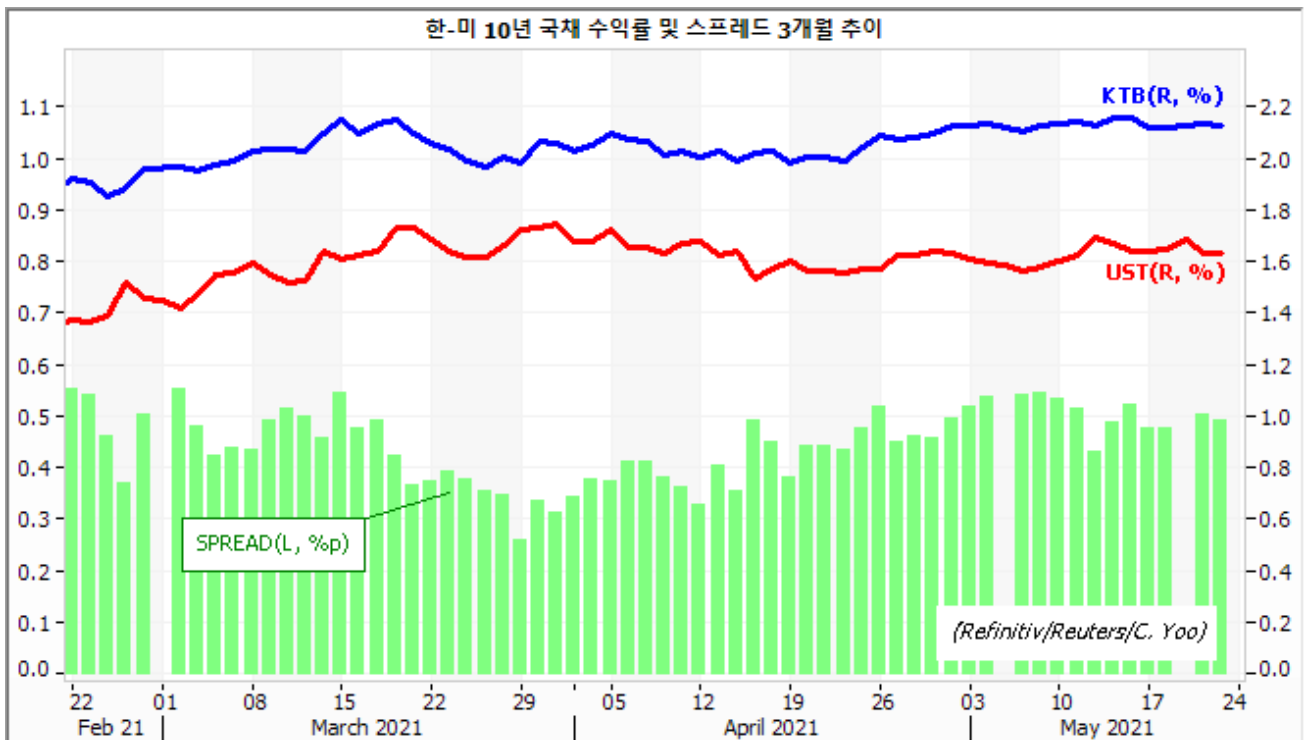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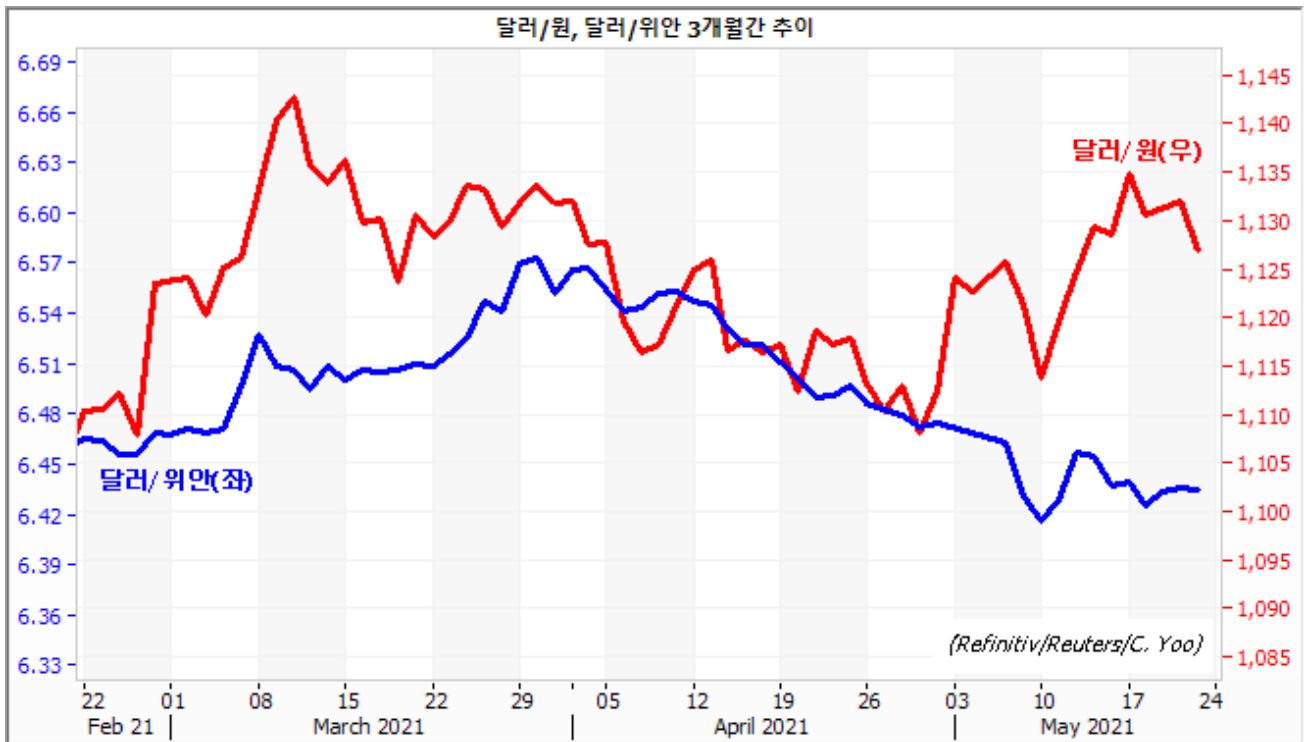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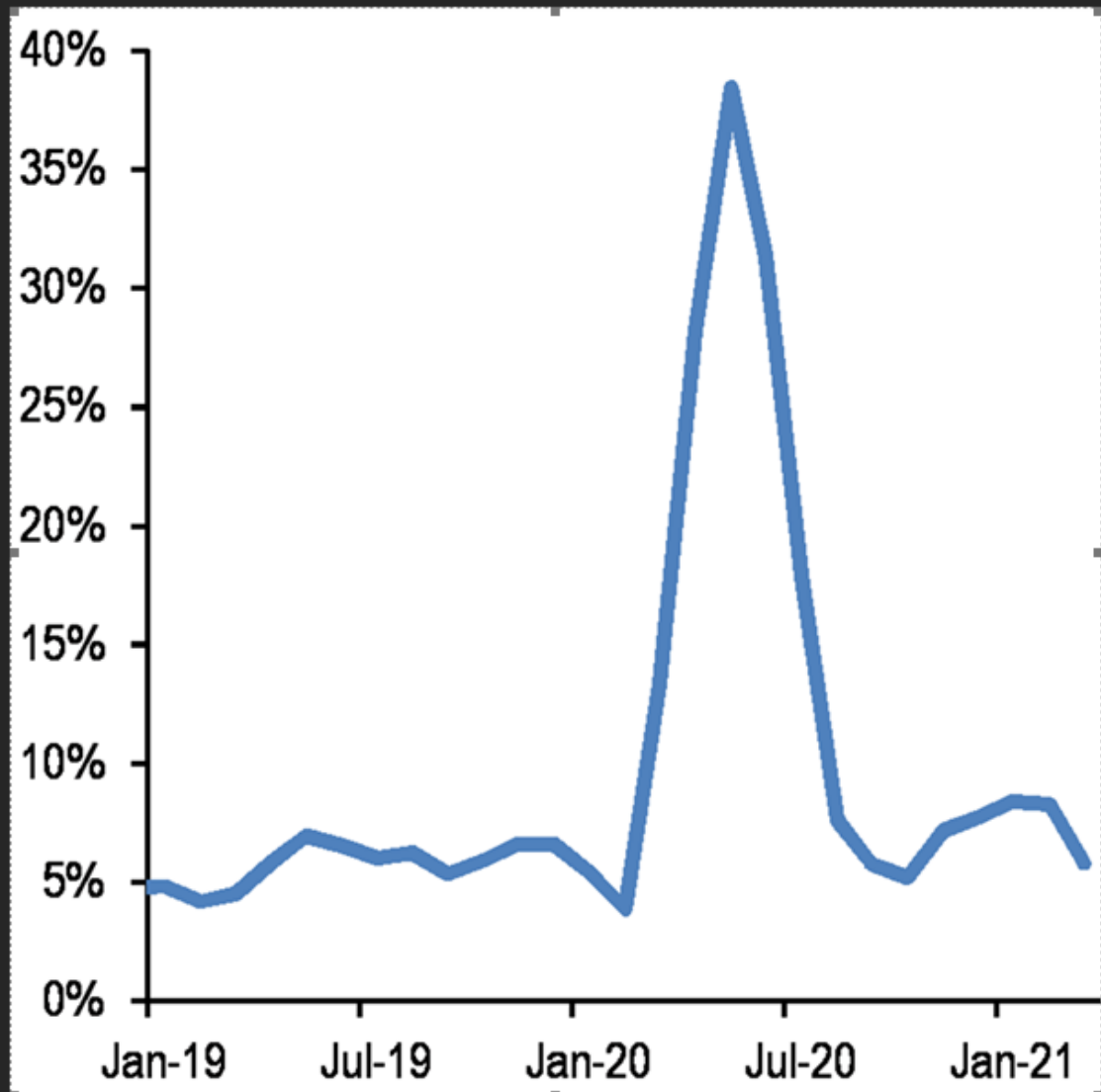


Figure 1: 3-month growth of Global M2 ex China

% change, monthly data aggregated across countries at constant exchange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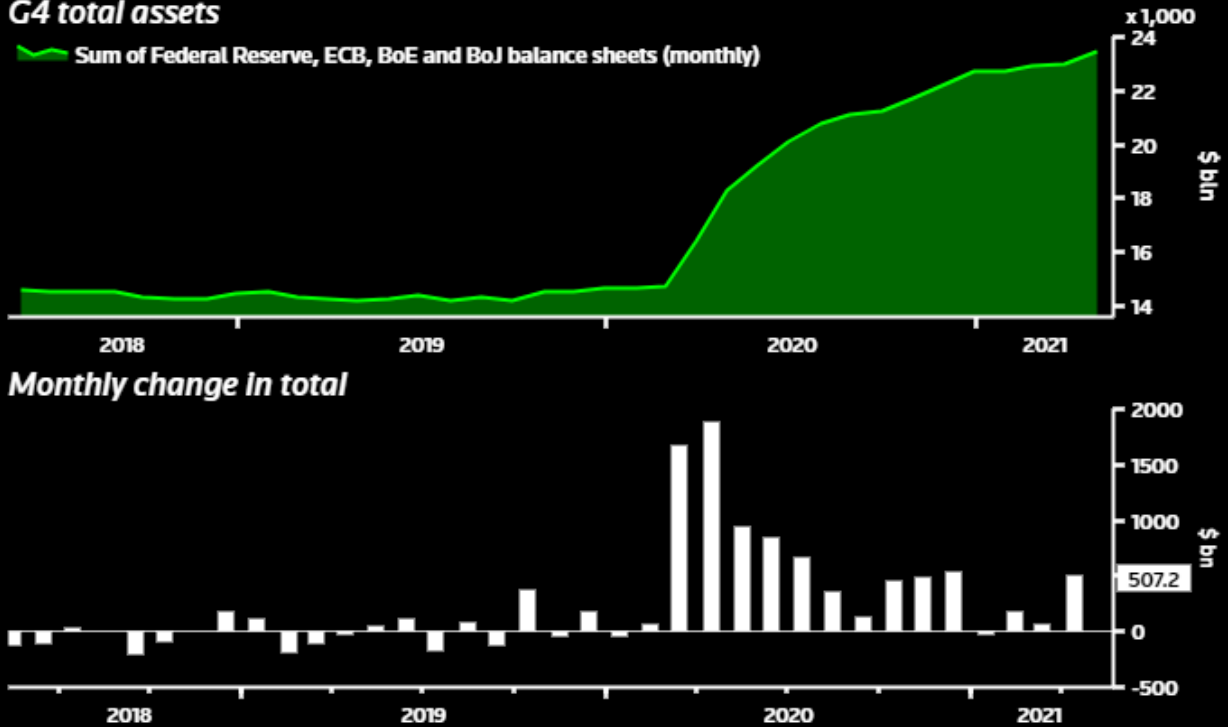
Source: J.P. Morga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Pace of central bank purchases falls in 2021

G4 total assets

Sum of Federal Reserve, ECB, BoE and BoJ balance sheets (month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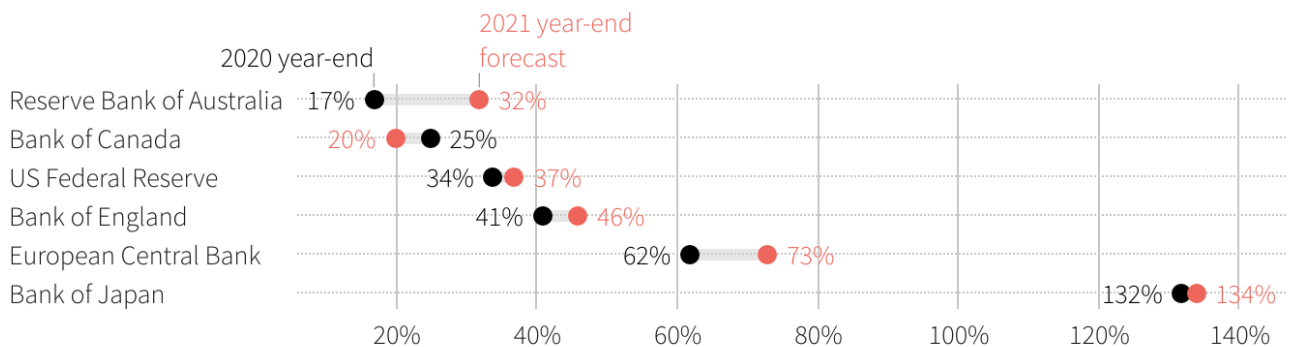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itvik Carvalho/Reuters 19/05/2021 Twitter @ri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entral banks, except the BoC, may increase the size of their balance sheet vs. GDP in 2021

Central bank balance sheets as % of GDP, end-2020 through to end-2021 (forecast)



Source: BoFA Global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